



보 도 자 료

2011년 10월 19일 (수)

작성자
(행정관)

녹색성장기획관실
최현정
신성주

연락처

770-7310, 7311

'11년 10월 19일, 11:00시부터 보도바랍니다.

“공생발전의 해법, 신성장동력에서 찾다!”

Green, Soft, Life 산업분야에서

10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선정·추진

□ 정부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장, 기재부·지경부·문광부·국토부·복지부·환경부 차관,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으로 구성

* 대통령 주재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11.4.14)」 이후, 관계부처 실무회의와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반 검토회의를 거쳐, 3차례의 선정평가위원회 평가회의(8.11, 8.25, 8.30)를 통해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후,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10.13)에서 확정

□ 선정된 10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분야	프로젝트명	소관부처
Green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지식경제부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지식경제부
	스마트 LED 시스템조명 개발	지식경제부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Soft	막여과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환경부/국토해양부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주도 차세대 SW플랫폼 구축 지원	지식경제부
Life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10개 프로젝트」는 올해 제66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 새롭게 형성·발전되고 있는 Green·Soft·Life 산업분야에서의 건전한 기업생태계 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성장과 창업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 향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200개 세부추진 과제(기존 일정대로 추진)와는 별도로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 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3개 분야(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여 선정·발표하였고('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 학계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부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제83차 국민경제대체 회의)」를 통해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한 바 있다('11년 4월).

□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도 총 3조 8,8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금년 3조 3,973억, 약 5천억 원 증액), 이 중 약 2천억 원의 예산은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며(금년도 대비 약 3배 규모),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R&D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부처 간의 융합행정과 민간투자 유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 그 동안 정부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과,

○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시장화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 성공사례 양산 등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 마련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선정된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면, (※ 별첨1 참조)

○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고효율 박막태양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스마트 LED 시스템조명 개발, 해상 풍력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인 민·관 투자가 이루어진 「그린(Green)」 분야의 상용화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있다.

○ 또한, 막여과정수산업 육성과 통합물관리기술 수출 지원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의 선진화와 대외 수출을 지원하고,

○ IT 강대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로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확보하고,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서비스의 수출산업화로 한류(韓流)가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Soft)」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한편,

○ 줄기세포 관련 의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Life)」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집중지원할 것이다.

□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간의 신성장 협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금번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체결된 한·미 양국 간의 「클린에너지 공동R&D 이행약정서」에 따라 에너지효율, 에너지 저장,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에 산학연 협력연구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FTA를 계기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 간 공조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또한, 노다 일본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환경·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서의 협력체제도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미·일 3국 간의 신성장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공조·발전전략을 주제로 하는 「한·미·일 3국 공동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 10개 프로젝트는 전문성과 시의성은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실무평가반>의 분석·평가를 거쳐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20여개의 신성장동력 후보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 <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반> 명단은 별첨2 참조)

○ <평가위원회>의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11.8.30)에서 이민화 공동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17개 분야가 각 분야의 기술을 산업화하거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선정된 프로

젝트들은 각 분야의 기술 상용화 및 산업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수직적·수평적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10개 프로젝트 선정 의미를 설명하였다.

-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은 “이번에 선정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액션플랜(action plan)의 하나로써, 이 프로젝트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행 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러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대·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공생발전의 모범사례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도출될 뿐만 아니라,

- 고용 및 경제성장을 제고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성장잠재력도 더욱 확충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확정된 10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주무부처가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별(혹은 부분별)로 보고할 예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10월 27일(비상경제대책회의, 잠정),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10월 31일(녹색위 보고대회, 확정)로 발표 예정되어 있다.

- 한편, 10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구축>의 경우 지난 9월 16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를 통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 <프로젝트별 세부계획 보고일정(안)>은 별첨3 참조)

<별첨 1>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주요 내용

프로젝트	주요내용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육성 (지경부)	▶ Ni-rich계(양극) 안정화 기술, 전해액 첨가제 개발 등 조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재 개발 적극 지원 ▶ 기존의 수입된 부품·소재가 아닌 전기자동차용 30kWh급 리튬이차 전지시스템 개발 등 국산화된 소재·부품을 채택하는 등 수요연계형 전지제조기술 개발 지원 추진 등
고효율 박막태양 전지 기술개발 (지경부)	▶ 소재-셀-모듈-장비-시스템의 Value chain간 공동 R&D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및 Open innovation을 적극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 전방산업인 스마트 그리드(발전), 제로에너지 빌딩(건설)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신규시장 확보 지원 등
에너지 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지경부)	▶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과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모바일기기, 가전 기기용 전력관리 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분의 국산화 ▶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료·표준 등 원천부터 제품화까지一括 개발 등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개발 (지경부)	▶ LED시스템조명을 구성하는 공통의 핵심부품-플랫폼-운영SW/컨텐츠-조명평가 등 全 공급체계를 패키지화한 수요연계형 R&D를 추진 하여 대·중소기업 협업체제 구축 ▶ LED조명을 시스템화 하여 개발·중앙 제어 및 다양한 콘텐츠 디밍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추진 기반조성 등
해상풍력 수출 산업화 기반구축 (지경부)	▶ 100MW의 부안-영광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배후단지 기반구축사업을 '14년 이전까지 완료 ▶ 총 9개 육·해상 풍력단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4개 이상 단지를 개발 사업에 연계('14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등
막여과 정수산업 및 통합물관리 해외수출 지원 (환경부/국토부)	▶ '13년까지 막여과 정수장 건립(중대형(4), 소형(19), 국고 1,455억원)을 통해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BTO사업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추진 ▶ 다수의 국내 적용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건설·운영사례 축적으로 해외진출 역량 확보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복지부/지경부)	▶ 민간주도의 진출을 기본전략으로 하되, 초기 시장형성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정부간 협력(의료인 면허, 의약품 등 통관, 인력 교류 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국가유형별 시장분석을 통해 전략진출국 및 역점진출분야를 선정, 시범성공사례(Pilot case) 조기 창출 유도 등
스마트 콘텐츠 산업육성 (문화부)	▶ 콘텐츠 개발업체(중소기업), 콘텐츠 수요자인 기기·서비스 업체(대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시장창출 프로젝트 추진 ▶ 스마트 시대를 견인할 창의인재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펀드 조성,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
민간주도 차세대 SW 플랫폼 구축 지원 (지경부)	▶ SW플랫폼 연관 산업의 핵심 기반을 확보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 ▶ R&D를 통한 SW플랫폼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미래 시장 선도 역량 강화 등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구축 (복지부)	▶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한 중개·임상 연구 강화 ▶ 줄기세포·재생의료 관련 인허가 등 제도 선진화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등

<별첨2> 평가위원회 및 실무평가반 명단

□ 평가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성명		소속 및 직위
이민화	공동위원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前 기업호민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前 KAIST 석좌교수
이준식	위원	서울대 교수(기계·항공), 국과위 거대공공전문위원회 위원장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신희영		서울대 의대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신정식		건국대 석좌교수(경영),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성창모		효성기술원장, 前 인제대 총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경영학), 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
장병규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대표

□ 실무평가반 민간전문가 (42명)

성명	소속 및 직위
유해영	단국대 컴퓨터학과 교수
이태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권택민	SM 미디어랩 대표,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겸임교수
허문행	(사단법인) 앱센터 운동본부 본부장
김철원	경희대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
이 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조흥식	서울대 법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대 의대 융합의학과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강태진	삼성전자 전무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

최용석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박종대	배재대 과학기술학부 교수
임종태	SKT Network 기술연구원장(상무)
김동구	연세대학교 교수
성낙선	ETRI 융합기술기획연구팀 팀장
양호식	(주)선익시스템 개발실장
김철우	고려대 전자공학과 교수
이윤식	KETI 시스템반도체 연구부 본부장
손미원	동아제약 연구소장
윤하식	LG 생명과학 연구소장
서주원	명지대 생명과학정보학부 교수
정대균	RNA 대표
강신일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이 현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지동근	수원대학교 전자재료과 겸임교수
조미령	한국조명연구원 표준기술부 팀장
조병원	KIST 이차전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장세홍	전자부품연구원 그린에너지 수석 연구원
최인환	중앙대 교수
유권중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 책임 연구원
이준식	한국 전력연구원 해상풍력 팀장
최수영	한국 전력기술 신재생 그룹 풍력팀장
김종엽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손진식	국민대 건설시스템 공학부 교수
오현제	건설기술연구원 실장
유승권	한국지엠 Electric System & Electrification 상무
이항구	한국 산업연구원 주력산업 팀장
장덕진	명지대 환경 생명 공학과 교수
김만영	한국환경 산업기술연구원 녹색기술 전략실장

<별첨3> 프로젝트별 세부계획 보고일정(안)

프로젝트	일정	회의체
○ 민간주도 차세대 SW플랫폼 구축지원 (지경부)	'11.10.27(잠정)	비상경제대책회의
○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 및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지경부) ▪ 신재생 에너지 이행점검 안건으로 통합 보고	'11.10.31(확정)	녹색성장위원회
○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문화부)	'11.11月中	비상경제대책회의
○ 막여과 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환경부/국토부)	'11.12月初	비상경제대책회의
○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복지부/지경부)	'11.12月中	비상경제대책회의
○ 스마트 LED 시스템조명 개발 (지경부) ▪ 경제정책조정회의('11.5월), 녹색위('11.6월) 기보고 ▪ 녹색기술 이행점검 안건 내용으로 보고 추진	'11.12月初	녹색성장위원회
○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지경부) ▪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既보고('10.7월)	'12.1/4분기	녹색성장위원회
○ 에너지 절약형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지경부) ▪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 既보고('10.9월)	'12.1/4분기	녹색성장위원회
○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 (복지부)	'11.9월 既보고	-

※ 관련부처와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보고일정 및 형식 확정